

讀書運動과 公共圖書館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 參考閱覽室)

I. 독서운동의 의의

독서를 생활화 하게 하며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교양을 살찌게하는 것에 독서운동에 의의를 둔다고 하면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인간의 덕성을 높이고 사리의 판단력을 기르며 사물의 이용을 기술적으로 다룸으로서 국민 생활을 향상시켜 나아가게 하며 효과적인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좀더 세분한다면

첫째 교양 또는 수양을 위한 독서 즉 정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독서(Inspiration)

둘째 지식을 쌓기 위한 독서 다시말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독서(Information)

셋째 위안 오락을 위한 독서 즉 정서를 배양키 위한 독서(Recreation)

넷째 그밖에 목적을 위한 Professional한 독서로 나눌 수 있다.

요컨대 독서는 국민 개개인의 양식과 지력을 키우는 근간이 되며 나아가서 국력배양에 바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절대성을 주고 있는 독서가 대부분의 국민생활과는 유리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도서관은 그 누구보다 국민 모두에게 책읽기 운동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그날 그날의 생활에 쫓돌리는 형편에 책 읽을 겨를이 어디에 있느냐고 불평을 말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국민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생활에 어려움을 이유로 독서를 멀리한다면 멀리할수록 그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때로 자기적책에 얽매여 허덕이나 보면 책을 읽을 겨를이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직업인일수록 전문서적을 가까이함으로써 전문지식수준을 높이고 지능을 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책을 멀리하고 있다는 현상은 자신의 장애에도 마이너스가 될 뿐더러 국가사회 전체로서도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니 좀더 독서의 습성을 길러야 하겠다.

독서의 생활화는 결코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요 문자그대로 생활속에서 습관화하여 우리의 의식주와 같이 생활속의 필수품이어야 한다.

독서를 생활속의 필수품화 하기 위하여는 국민 각자가 독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II. 공공도서관과 독서운동

도서관이 독서의 기지로서 민중의 대학이요. 시민의 봉사기관으로 “책을 민중의 신변으로” “도서관을 민중의 걸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의 도서관을 운영해온지 어언 25년이 되었다.

그간 공공도서관은 우리 민족문화를 보존하는 터전으로 정신문화의 산실로 꾸준한 발전을 기울여 왔으나 국가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비교적 성장율이 낮은 저개발부서로서 그런대로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보존 정리와 열람봉사업무에 매진하여 왔다.

그러나 날로 급변하여 가는 사회의 발전은 이제 도서관이 자료의 보존이나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 자료제공만으로 끄치든 전근대적인 도서관 활동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오늘날 현대 도서관의 사명은 생동하는 기관으로 모든 생활 요소에 필요 불가결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도서관 봉사활동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어야,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생활속에 파고들어가 그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생활요소로서의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인포메이션의 주요 근원은 문헌을 통한 모든 자료에서 소산되는 것으로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가 문헌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適書 適者 適時(The right

book for the right reader at the right time) 백하도
 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생활의 건
 전한 발전과 보다 참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
 면으로 또한 국력배양의 절대요소로서 국민의 독서 계
 몽과 독서 양양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독서지로서 시민누
 구나가 언제 어느때든 어디서나 아무런 불편없이 될수
 있는 한 한시의 여가도 헛되지 보냄이 없도록 독서가
 의식주와 같은 생활 필수품으로 등장하도록 생활속
 에서 습관화하게 되어야 하겠다.

독서가 생활화하도록 하는에는 어려서 부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독서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분위기
 에서 국민각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달성키 어
 려운 것이다.

근간에 들어와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간격이 적
 겠게 좁혀졌다고 하나 아직도 문화생활면에서 독서여
 건 조성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이러한 때에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사회 주민에게 우
 선 독서를 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는 무엇보다 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정신적 안위와 교양을 쌓
 아 수 있는 수준에 알맞은 책을 부엌과 마루방 실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 즉 책이 손에 닿을수 있도록 대

출하여 주고 다시 일정기간 교체하여 주는 꾸준한 계
 몽과 봉사활동을 벌려야 하며 이것이 당연한 공공도서
 관계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년년이 되풀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주간 행사도
 책을 읽히기 위한 실질적 계몽운동으로 번져 갈 수 있
 도록 비독서층에 책을 쥐여주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거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국제적으로 본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환경 여건

우리 나라의 인구밀도는 1m²당 316인으로 매우 조밀
 한 인구분포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 인구 3천 108
 만 2,000명중 비교적 문맹율이 낮은 국민으로 문맹자수
 는 2,605,443명이고 68년말 현재 초등 교육을 받았거
 나 받고 있는 숫자는 23,710,058명이고 69년 4.11 현
 재 전국 학생수는 7,632,204명으로 매우 교육수준이
 높은 문화민족이다.

우리가 흔히 문화민족이라 함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
 을 측정하여 부르는 것으로 독서와 문화수준은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각국의 문화 수준을 대비하여보자.

각국문화 수준 비교(Cultural Level of the World)

국 명	인구 (백만명)	신 문			라 디 오 T V			영 화			서 발 부 (백만부)	신 문 지 인 당 비량 (kg)		
		년	절 수	발 행 수 (천부)	수신기수 (천 대)	수상기수 (천 대)	계 장 현 본 수 (백)	영 화 관 랑 수 (백만)	관 랑 수 (백만)	관 랑 수 (백만)				
Austria	550	64	37	1,787	248	2,134	586	15	65	1,255	85	11.8	4,038	10.6
Canada	860	63	111	4,213	23	10,000	4,950	62	62	4,427	101	5.4	3,000	22.3
Denmark	810	64	70	1,624	344	1,619	1,020	21	62	453	39	8.4	4,755	22.9
France	910	63	129	11,701	245	14,981	5,414	148	61	5,802	344	7.5	13,479	11.3
W.Germany	607	64	420	18,800	323	17,494	10,024	74	63	5,965	377	6.5	25,204	11.7
India	5,800	64	514	5,693	12	4,315	0.5	304	62	3,664	1,400	2.2	13,128	0.3
Italy	610	61	91	5,000	101	10,370	5,216	270	61	10,571	744	15.1	8,797	7.4
Japan	900	64	169	42,533	439	19,666	16,716	629	63	6,164	511	5.3	24,094	12.5
Republic of China	2,625	62	31	720	66	1,114	3.3	62	62	551	66.9	6.5	3,095	1.0
Korea	3,125	62	34	1,500	57	1,729	31.7	113	62	492	79	3.0	3,720	1.6
Sweden	1,000	64	120	3,865	505	2,947	1,964	20	62	2,189	50	6.6	5,703	29.2
Swiss	750	64	135	2,187	265	1,626	492	2	63	646	50	8.6	5,341	17.8
U.K	960	64	103	28,300	523	16,015	13,155	114	62	2,421	395	7.4	26,213	26.0
U.S.A	760	64	1,763	60,412	314	192,000	67,100	191	63	17,500	2,179	11.5	28,451	37.9

위의 대비표를 보고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면 우리의
 문화생활 수준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출판물 중 도서 평균 발행 종수는 67년에
 3,100종 68년에 2,000종 69년에 1,300여종이며, 전국
 에 신문발행 부수는 267만8,155부이고 정기구독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50%다. 대체로 년간 총 도서 발행 부
 수는 3,170,283부(대다수가 아동물)이다.

67년도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주요 국가별
 출판물 발간 종수는 다음과 같다.

생 활 환 경 경 수 준 (1965년)

	미 국	영 국	스웨덴	불란서	서독	이태리	일본
생 활 환 경 수 준	97.2	100.0	94.2	66.9	88.0	66.0	44.0
환 경 위 생	95.1	100.0	93.4	56.4	88.9	44.8	32.2
교 육	67.8	100.0	54.3	46.8	61.2	81.0	60.2
자 유 시 간	100.0	73.7	94.0	35.1	46.3	35.9	7.7
통 신	74.8	53.3	100.0	38.2	54.2	34.7	39.6
교 통	42.2	100.0	43.3	68.8	78.7	60.7	25.4
보 안 방 재	100.0	55.9	50.3	63.8	83.1	65.9	60.2
보 건 위 생	63.3	71.8	100.0	60.6	72.4	47.1	54.7

도서관 소장의 책수와 도시 공원 면적의 국제비교

	영 국	불란서	서독	이태리	스웨덴	미 국	일본
(인 구 천 인 당) 도 서 관 소 장 책 수	1,438	567	399	333	2,282	1,447	207
주요 도시의 공원 면적 (도시 인구 일인당m ²)	10.0 (런던)	5.8 (파리)	14.4 (베르린)	—	—	19.0 (뉴욕)	0.9 (동경)

주요 국가별 출판물 발간 증수

국 별	종 수	연 도 별
미 국	58,800	'67
서 독	29,500	'67
영 국	31,400	'69
불란서	1,900	'67
일본	4,000	'67
인 도	10,600	'67
태 국	4,200	'67
자유중국	2,200	'67
한 국	2,686	'69

우리 나라의 전국 출판사는 약 1,000개소로 이중 유명한 출판사는 200개 내외이다. 도서에 1개월간 평균 광고 회수는 '67년 94건 '69년에 33건으로 광고율이 점차 격감됨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일인당 도서 구입량은 0.6%이고 일본은 1.3%이다.

우리 나라 전체 도서관은 '69년 9월 현재 4,085개이고 그중 공공도서관이 61개 대학도서관이 128개 특수도서관이 129개 고등학교 이하의 도서관이 3,767개관이다. 총 장서수는 1,266만권이며, 69년 도서관 총 이용자수는 4,400만이며 총 이용 장서수는 507만 권으로 총 이용자의 1/8만이 도서관 장서를 이용했다는 결과로 장소 이용만이 도서관 이용의 주목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택 사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실증으로 '68년 9월말 현재 서울의 가구수는 75만 4천인데 비해, 주택은 전체가구수의 53.9%

에 해당하는 40만 6천여호고 나머지 46.1%인 34만 8천여가구가 집이 없는 실정이고 2백만 시민이 셋방살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 인구의 1/4이 넘는 25% 이상이 무주택자이며 '68년말 현재 전 인구 3천 46만명의 총 가구수 5백만 21호의 주택이 필요한데 비해 369만호의 주택밖에 없어 26%에 해당하는 139만 호가 무주택자를 하는 결과가 된다.

전국 한가구 (5~7명)가 차지하는 면적은 7.5평으로 한 사람이 평균 1.3평이란 협소한 곳에서 생활하며, 도시의 경우 1가구당 (5.5명) 면적은 7.1평으로 한사람이 1.2평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독서환경시설이 없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보다 많은 공공시설이 시급히 갖추어 져야 할 문제이다.

이제 각국의 인구나 공공도서관 수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당 인구수

국 명	인 구	년 도
노르웨이	2,821	1967
덴마크	3,262	"
스웨덴	3,456	"
미 국	26,047	"
한 국	512,000	"
소 련	1,677	"

이렇듯 엄청난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은 국민의 독서운동을 크게 저해할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의 도서관 열람좌석수는 22만 9,389석이며 도서

관 직원수는 4,856명으로 도서관 1개에 직원 1명 꼴이다.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독서량은 평균 60page로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중공을 제외한 기타 제국이 평균 30page로 되어 있어 다소 우리 나라 평균 독서량이 많다고 할지 모르나 일본이 연간 3,000페이지고 구미제국의 평균 독서량이 1,080페이지로 일본은 평균 일반서적 3권에 잡지 10권 교과서 2권정도를 읽는다 하며, 영국인은 1일평균 1인당 80페이지 내지 100페이지를 읽는다고 한다.

국민독서율로 보면 영국은 45% 미국은 30% 불란서는 28%이며, 한국은 10%내외로 독서율은 한심할 정도이다. 도서관 예산총액은 우리 나라 전예산액의 1/1,500인 7억 9천만원으로 그중 공공도서관 투입 예산액은 1억 3천만원으로 이중 60%가 인건비이고 도서구입비는 16%에 불과하다.

영국이나 미국은 30%~50%를 도서구입비에 투입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것이 그 지역에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율이다. '68년말 우리 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1,030만명이며 실업율은 4.7%이고 농어촌 인구가 544만5천명으로 55.5%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화시설의 혜택율이 낮은 농어촌에 전인구의 과반수가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거개가 도시 집중의 상태에 놓여있어 편중된 도서관 활동을 하는데 그치기 쉽다.

공공도서관이 담당하는 역할로 보아 가장 큰 비중은 도서의 회전에 있다고 하겠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관의 대출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재에서는 독서운동에 올바른 구실을 할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관의 대출이 활발한 덴마크와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교하여 보자.

장서와 대출책수의 비교 ('67)

	장 서(천책)	대 출(천책)
일 본	20,249	8,878
미 국	161,126	523,956
영 국	77,200	460,506
스 웨 덴	17,485	33,810
덴 마 크	11,615	29,737
서 독	22,376	—
동 독	15,723	46,393
체 코	32,897	54,016
항 가 리	16,142	46,196
플 란 드	39,539	91,469

인구 일인당 공공도서관—활동 비교표

국 명	덴마크	일 본	한 국
소 장 책 수 (인구일인당)	2.72	0.9	0.0028
연 간 가 정 수 대 출 책 수	6.79	0.9	—
장서회전율	2.45	약0.7	0.3

공공도서관의 국제비교

	장서/인구	등록율(%)	대출/인구
일 본	0.209	0.680	0.0916
미 국	1.38	—	4.44
영 국	1.43	—	8.56
스 웨 덴	2.28	16.8	4.41
덴 마 크	2.46	—	6.3
서 독	0.384	5.42	—
동 독	0.92	15.4	2.71
체 코	2.36	21.3	3.87
항 가 리	1.6	20.2	4.56
플 란 드	1.27	15.8	2.94

IV. 독서 운동의 유형과 방법

1. 독서운동의 다양성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한 독서운동을 벌일때 대체로 비독서층이 얼마나 되느냐에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과반수가 독서와 친숙하지 않은 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을 독서층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당면과제라 하겠다. 독서운동은 기본적으로 책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즉 이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나가 문제다.

독서가 생활력의 일부요 생활화의 일환으로 습관화하도록 하는데는 그 방법과 유형에 있어 매우 다종다양하다.

첫째 독서력 및 독서습관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기초적인 독서력을 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서운동의 과제는 아닌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문제로 사실상 기초적인 독서력이 없이는 독서가 불가능하다.

독서습관의 확립은 아동기부터 독서환경에 젖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문제의식 또는 의욕이 결핍된 경우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독자와 전혀 독서시설을 활용할 의도가 없는 비독서층(Non reader)의 독서 유인으로 잠재적인 독서의욕을 구체적인 독서동기로 끌어 들여야 한다.

셋째 생활 환경조건으로 인한 경우

독서할 여가가 없이 생활에 쫓겨나는 이들에게 삶의 활기찬 의욕을 불어 넣어 주는 방편으로 독서를 권장한다.

대체로 전체 인구중 1/3이상이 이들 부류에 속하는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독서 계발이 가장 중요하다.

넷째 독서 할 기회를 준다.

여가가 있다 하더라도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형편이거나 책을 사서 읽을 정도까지의 적극성이 없는 이들에게 1권 정도의 책을 선정하여 주어 읽든 안읽든 책을 그들에게 가까이 둔다.

다섯째 적서를 제공한다.

책이 있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알맞는 책이 아니면 독서할 자극을 주지 못하며 따라서 독서욕구에 만족을 줄 수 없다. 여기에 도서관원 또는 독서운동 지도자의 활약이 요구된다.

여섯째 매스콤 또는 그밖의 미디어로 비독서층을 독서층으로 끌어 들인다.

正面으로 독서를 거부하는 층에게 영화 연극 T.V 라디오를 통하여 또는 강연, 좌담, 연구회 실지견학 방법 등을 활용하여 독서권으로 끌어 들인다.

독서환경 조성

① 책을 시민의 곁으로 라는 슬로건은 도서관 썬미스의 중요 point다. 원하는 시민에게 (Free to All) 누구나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관의대출제도를 마련하고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의 설립 순회문고 등은 공공도서관이 당면한 시급한 독서운동의 일환책이다.

② 단순 도서관 보다는 도서관과 도서관간의 연결 그밖의 독서시설군과의 연결을 맺는다든가 Group 또는 Circle 연결의 독서가 독서인구 증가운동에 훨씬 효율적이다.

③ 자료비의 대폭증액

독서운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즉 많은 양의 도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운동은 매우 난점으로 남게된다. 모든 비독서층에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④ 집단 지도

독서층 끼리 상호 의견 교환을 하며 개인대 개인에서 집단대 집단의 독서가 성황하면 밀도 높은 독서운동을 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집단독서의 이점은

① 독서경험의 교류확대

② 문제파악의 심화로 기록 실지응답을 기할 수 있다.

③ 독서회원의 탈락방지, 독서의욕 자극, 독서의 계속성 유지

윤독식(輪讀式) 독서회

특정문제를 연구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나가는 것으로 독후감, 독서경험 등을 담화식으로 발표회를 갖는다.

독서회(Reading Circle)

비교적 독서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으로는 권장할 만한 것이다.

V. 독서운동의 실제

여태까지의 많은 독서운동 방법이 논의 또는 활용되어 왔으나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운동의 실천방도로는 다음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자모문고 설치

독서가 습관화 하는데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것과 같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끼리의 독서습성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자모문고의 설치방법으로 국민학교 2학년을 (그 외의 학급도 좋음) 몇학급 선정하여 이들 대로의 冊을 짜서 직접 아이들의 손에 대출도서를 돌려주고 받아오는 방법으로 도서의 선정은 자모중 독서에 비교적 열의가 있는 분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정에 알맞는 류의 도서를 갖추게 한다. 이의 확대방법으로는 전학급 전학년 전교와 舍市 및 全郡을 순차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자모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단 몇분의 시간이라도 함께 앉아 독서지도를 하고 함께 독서한다면 매우 의의 있는 독서방법이 될 것이다.

② 행정단위의 독서운동 전개

통반 단위의 문고를 설치 행정조직의 체계를 활용하여 대출등록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대출등록제는 구미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히 시행되어 온 것으로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최소한(500원)의 등록회비를 받아 대출등록회원에 가입시켜 일정기간 대출하였다가 반납하고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 좋을듯하다.

독후감 경연대회도 물론 좋은 자극제가 되겠으나 그 보다는 비독서인들에게 한편의 책이라도 볼 수 있는 알맞는 책을 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적극적인 독서운동 방법

이동도서관을 설립 이제까지 앉아서 하든 봉사방법을 버리고 관의 열람봉사방법으로 책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드리며 독서에 대한 P.R을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전개하는 방법이다.

VI. 끝 말

독서운동은 시대의 변동 사회추세에 따른 방법을 도입 소단위 활동에서 점차로 확대하여 이끄는 것이어야 하며 지역주민 또는 국민이 독서무드에 이끌려 나가도

이 달의 도서관 역사

9 월

- 조선고서전람회, 경성대도서관 주최(1931)
- 성공관대학교중앙도서관 설립(1946)
- 전남대학교중앙도서관 설립(1953)
- 삼육신학대학교도서관 설립(1957)
- 이제철 편 한국참고도서해제, 1910—1958년 6
월분 출판(1958)
- 이종문 저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비교 출판(국
립도서관자료 제1집)(1960)
- 강경도서관 개관(1915)
- 열차내에 문고를 설치(1922)
- 울산도서관 개관(1922)
- 홍성간이도서관 개관(1922)
- 함안간이도서관 개관(1923)
- 곡성군향교재산도서관총람소 개설(1925)
- 청주읍립도서관 개관(1931)
- 1일 해병대사령부도서관 설립(1960)
- 4.19도서관 설립(1964)
- 한국도서관협회 편 「학교도서관의 시설」 출판
(1965)
- 중앙대학교중앙도서관 설립(1949)
- 충주대학교도서관 설립(1951)
- 국립도서관 주최로 18일까지 도서관 실무강습회
를 개최(1954)
- 침례회신학교 설립(1955)
- 8일 전북대학교중앙도서관 설립(1957)
- 10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설립(1951)
- 11일 제2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특수도서관대회 11일—12일(한국연구원 및 중
앙교육연구소)
- 대학도서관대회 13일—14일(고려대학)
- 공공도서관대회 16일—17일(인천시립도서관)
- 학교도서관대회 19일—20일(부산여자중학교)
(1963)
- 12일 국립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19일까지 동
관에서 「해방이후출판물전시회」를 개최
부산영도도서관 설립(에춘호 설립(1964))
- 15일 인천문화센터 낙성(1962)
- 충남도도서관협의회 결성(1962)
- 서울대학교의과대학도서관 설립(1965)
- 20일 국립도서관 아현동분관 개관(1957)
- 21일 대한교육연합회 주최로 23일까지 개최된 제7회
교육연구대회 행사의 일부로서 교연산하의 「학교
도서관연구회」에서 전국학교도서관연구대회를 열
다(1963)
- 제3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대학도서관대회 21일—22일(고대도서관)
- 특수도서관대회 23일—24일(중앙공보관)
- 학교도서관대회 25일—26일(대구상업고등학
교)
- 공공도서관대회 28일—29일(대전시립도서관)
(1964)
- 22일 대구대학도서관 설립(1947)
- 24일 제10회 독서주간을 30일까지 실시(1964)
- 독서주간을 30일까지 실시하다(1965)
- 25일 광주지구 학생도서관협의회를 전남교육회관
에서 결성(1965)
- 광주지구 중고등학교 사서교사연구협의회를 전
남교육회관에서 결성(1965)
- 26일 공보부에서 정기간행물목록(4281년 8월부터 42
94년 3월 31일까지)발간(1961)
-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제8회 전국도서관전시회
를 2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1964)
- 30일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 설립(1961)
- 전남지구도서관협의회 결성(1963)

목 그 활동을 국민의 마음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P.R이
필요하다.

이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은 모든 공공도서관의 책무
요 또한 강력한 정부당국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독서운
동을 전개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공공도
서관이 독서운동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힘에
겨운 일이라 하더라도 독서인구 개척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예산회득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한다.

여하튼 이 운동의 성과는 관계당국과 도서관인은 불
론 일반 독서운동단체 및 국민의 부단한 협력이 없이
는 성과를 얻기에 지란한 사업이다.

참 고 문 헌

- 讀書指導事典 출판연감(1967)
- UN統計연감(1967) 출판문화 27卷 10號
- 圖書館ハントブック 圖書館雜誌 Vo. 63, No. 11
- 동아연감(1970) Journal Hand book
- 한국연감(1970) 日本出版年鑑(1969)